메트로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게임한류 이러다간 게임 오버"

국내 최대 '지스타 2013' 게임중독법 논란 속 어수선한 풍경

메이저업체 달랑 2곳 참가…절반은 대학 연구소 부스
관람객도 눈에 띄게 줄어 대년 존폐 위기론까지 불거져
"즐길거리를 규제대상 치부" 재뿌리는 정치권 비난 고조

"이러다간 내년 지스타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매년 지스타에 참가했지만 올해처럼 썰렁한 적은 처음이다."

국내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가 읊조렸다. 관람객과 게이머에게 게임 기회와 정보를 주는 B2C관에 부스를 마련한 메이저 업체가 넥슨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두 곳뿐인 현실에 한숨을 쉬었다.

지스타에 처음 참가한 포털 다음이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에 버금가는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했고 게임 관련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준비한 부스가 전시장의 절반에 달했다.

관람객들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로라하는 국내 업체들이 앞다퉈 심용화될 게임을 미리 선보이는 장이었던 지스타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번 지스타는 이러한 공간은 물론이고 기회조차 대폭 줄었다.

고교생 김진호(18)군은 "게임중독법 발의와 같은 뉴스를 듣긴 했는데 그 여파가 지스타에 미칠 줄은 몰랐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행사라면 굳이 돈을 내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군은 이어 "지난해에는 참여 업체가 많아 부스 간 거리는 물론 통로도 좁아 걷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넓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 B2C관을 둘러보면 과거의 위용을 찾아보긴 힘들다. 넥슨, 다음, 블리자드, 워게이밍 등이 80부스 내외의 적지 않은 공간에 터를 마련하고 관람객을 그러모으고 있지만 그 외의 전시장은 '위커박람회'를 연상케 할 정도로 대학과 같은 게임 관련 연구단체의 부스가 많았다.

지난해만 해도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아도 전시장을 둘러보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올해의 경우 15분도 채 되지 않아 부스 투어가 끝났다. 일부 업체에 게임 시연대가 마련됐지만 관람객의 발걸음이 대폭 줄어든 탓에 대기열이 거의 없었다.

지스타는 2005년 출범 이래 매년 관람객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지스타의 자랑이었던 관람객 100만 명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추락한 지스타를 바라보는 부산 시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벡스코 인근에서 만난 한 시민은 "부산영화제, 지스타 덕에 부산이 아시아의 명소가 됐는데 정치인 밥그릇 싸움 탓에 게임이 규제 대상이 되고 결국 지스타가 덤덤 빈 것 아니냐"고 함께 말했다.

그는 이어 "지스타 부산 유치를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는 허남식 부산시장도 새누리당 소속인데 이러다 같은 당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 같다"며 벌써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내다봤다.

허 시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할 수 없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이자 지지율이 높은 김세연(금정구) 의원이 새누리당원을 최집은 것이다.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도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처럼 지스타를 을씨년스럽게 한 게임중독법이 부산에서는 시장 선거와 관련된 또 다른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부산=채성욱기자 zen@metroseoul.co.kr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 국내 최대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3' 블리자드 부스에 최신 게임을 즐기려는 게이머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거의 모든 부스가 입장하는데 수십 분이 걸리는 등 북새통을 이뤘지만 올해는 일부 인기부스를 제외하곤 바로 입장이 가능할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하세요" 14일 동탄시티병원 봉사단이 어르신들의 관절과 척추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연합뉴스

치매 예측 뇌지도 만들어 2017년부터 전국민 조기진단 서비스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노인 치매 예방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대, 조선대, 삼성 서울병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치매 예측을 위한 뇌지도 구축 및 치매 조기진단 방법 확립 사업'을 신규 과제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대국민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치매 조기진단 사업은 뇌영상장비(MRI 및 PET)를 활용해 한국인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를 구축(60~80대)하고 체액(혈액 및 유전체) 기반 치매 조기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관련 연구를 시범 착수하며 향후 5년간 약 250억~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기공명영상(MRI)으로는 뇌의 구조를 보고 아밀로이드 양전자단층촬영(PET) 장치로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 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정상인 등도 자신의 혈액, 유전체, 뇌영상을 종합 분석한 후 치매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알 수 있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발병이나 진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치료 방법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맞춤형 치매 예측 및 조기 진단이 가능해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용기자 ljy0403@

리베이트 대신 주겠다는 정부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레저부 기자>

얼마 전 제약업계에 비보가 전해졌다. 유보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도 폐지에 은안했다. 제도가 또 한 번의 약가 인하 정책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 역시 미미할 것은 물론 대형병원만 실속을 챙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약사회, 시민단체, 경자권도 여러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큰 효과가 없다며 제약업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모순이다. 제도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규정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 즉 병원이 원래 가격보다 약을 싸게 사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병원에 지불한다.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리베이트를 자행하겠다는 것.

일정 금액을 돌려주니 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 약을 써달라고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을 파는 제약사의 명분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게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대신 돈을 무기로 삼겠다니 설상가상 더욱 커질 뿐이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신의직장'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 20개 공공기관장 불러놓고 방만경영·도덕성 등 질타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현 오석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도 공기업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는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장과 조계봉 무역보험공사 사장,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설안전공단,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등 8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가 이렇듯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질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토록 경영 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다.

또 지난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발생 원인을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kaqt@metroseoul.co.kr

청와대 국감 나온 비서실장 1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뒤에 착석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비서실장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할 때 충분히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검증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 중 밝혀진 사실에서 정확히 짚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창석 "오산땅 실제 주인 전두환 맞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사진)씨가 경기도 오산땅의 실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4일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 이라며 이씨가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유언장에는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이어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 측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올 연말까지 170억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에 피고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근수기자 mjk.m@

뉴스&뉴스

"충청 홀대 의석수 위헌"… 정우택 헌법소원 청구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4일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이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 수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는 올해 들어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는데도 국회의원 의석 수가 충청권(25석)이 호남권(30석)보다 5석이 적은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도울 구호품 싣고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태풍 피해지역으로 보낼 구호품을 실은 군 수송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심학봉·이상직 의원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 대법원이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의원과 민주당 이상직(50·전북 김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장학재단-중진공 업무협약

한국장학재단이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학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희망사다리장학생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은 29일까지다.

방송대 선취업 신입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고졸 재직자를 위한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선취업-후진학 전형 신입생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금융서비스학부와 첨단공학부를 신설해 이들 학부에 2000여 명의 학생을 고등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산재 후유증 치료비도 보험 적용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더라도 후유증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료비를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통과로 산재 근로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산재보험 담당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 부담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했다.

또 산재요양 종결 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나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無)장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보험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재해자가 후유증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사후에 재해자나 사업주에게 건강보험의 부담금을 환수받았던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청구 제도는 폐지된다.

/홍재을기자 [illegible]

사 군통령 크레용팝 1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육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걸그룹 크레용팝이 게릴라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크레용팝 외에 개그맨 김준현, 배우 최승현, 방송인 김성주 등 11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연합뉴스

문과도 서울대 의대 간다

내년부터 치대·수의대도 — 정시비중 24.6%로 늘리고 100% 수능으로 선발

서울대가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르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논술과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정시모집 비중은 2014학년도의 17.4%에서 24.6%로 늘리고 수능 점수로만 뽑는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도 서울대 의대와 치대·수의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가 이들 학과에서 문과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체제 도입 이래 처음이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안을 14일 열린 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

◆ 정시 논술 폐지, 모집군 '가'로

정시모집 인문계열의 논술과 자연계열의 면접·구술은 폐지하고 모집군은 '나'에서 '가'군으로 이동한다. 선발인원은 총 선발 인원 3135명 가운데 24.6%인 771명으로 늘린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수능으로만 선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영역은 동점자 처리 기준과 교과이수 기준 확인 자료로 활용하고, 학내외 징계 등 비교과 영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지역균형선발전형 692명, 일반전형 1672명 등 2364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75.4%로 비중을 줄인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서울 '김장하기 좋은 날' 27일

평년보다 이틀가량 빨라

올해 김장은 중부지방은 이달 하순, 남부지방은 다음달 상순 이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은 14일 서울·경기 및 중부 내륙지방은 11월 하순, 남부·동해안지방은 12월 상순~중순 전반, 남해안지방은 12월 중순 후반 이후가 김장하기 좋은 시기라고 밝혔다.

주요 도시별 김장 대상일은 서울 11월 27일, 대전 11월 30일, 인천 12월 1일, 대구 12월 6일, 광주 12월 7일, 강릉 12월 1일 등이다.

서울은 평년보다 이틀 빠르고 대전은 하루, 광주·강릉은 나흘 빠르다. 반면 대구는 평년보다 하루 늦다.

기상청은 일 최저기온이 0도 이하이고 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김장 적정 시기라고 본다. 이보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고 기온이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어서 제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면서 김장 적정 시기도 대체로 늦어지는 추세다. /조현정기자

2013년 김장 적정시기 예상도

2500명 오케스트라 14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3 전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초·중·고교생 2500여 명이 신세계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균범벅' 더치커피 백화점 납품

일반 세균 수가 기준치의 최고 260배에 이르는 더치커피(찬물로 장시간 추출한 커피)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 납품해온 제조업체 등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14일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를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제품 1%병 189ℓ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금천구의 A사는 지난 4월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은 무표시 원두 148kg으로 더치커피 5180병(3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과 명품 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서울 구로구의 B업체는 무허가 공간에서 멸균 처리하지 않은 유리병, 페트병 등에 더치커피 원액을 수작업으로 다뤄 담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 758병(580만원 상당)을 백화점 등 49곳의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 회사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100배까지 검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원두커피제조·판매 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해 허위식품표시, 위생불량 원두커피 등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노원구 청소년 비만율 낮추기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청소년 비만 관리에 나선다.

노원구는 '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까지 중등도 이상 청소년 비만율을 4.7%에서 3.7%까지 낮출 계획이다. 중등도 이상 비만 학생인 초등 4학년 289명과 중 1학년 357명 등 646명을 집중 관리한다.

강서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본격적인 겨울철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2013~2014년 제설대책을 수립했다.

구는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한다. 제설차량, 살포기, 삽날 등 9종 73대의 제설장비 점검은 이미 마쳤다.

노인 삶의 질 향상 포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1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고령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방안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단 전문가 및 3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고졸 이하 맞춤특기병 모집

병무청이 14일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 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되는 제도다. 18~24세 고졸 이하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 정비, 기계, 통신 등의 분야에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김민준기자 mkim@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 사망

1978년 11월 15일 20세기 문화인류학의 대모이자 교육 사회운동가인 마거릿 미드가 77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사모아·뉴기니·발리섬 등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연구했는데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 역할과 관습을 결정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이론으로 유명해졌다. 미드는 문화인류학에 심리학적 방법을 도입하고 발전시켰으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해 20세기의 세계적인 지식인으로 존경받았다.

영영 못볼 혜성 '아이손' 온다

금세기 가장 밝은 혜성 17일 새벽 무료 관측화

금세기 가장 밝은 혜성으로 알려진 '아이손(ISON)'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

아이손은 지난해 9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 천문연구팀인 '국제과학광학네트워크(ISON)'가 처음 발견한 혜성으로 학술명은 C/2012 S1이다.

이동 궤도가 타원형이 아닌 포물선이기 때문에 한 번 태양을 스치고 지나가면 다른 곳으로 영원히 떠나기 때문에 볼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76년 주기로 찾아오는 핼리혜성보다 크기는 작지만 태양 표면을 아주 가깝게 지나가기 때문에 금세기에서 가장 밝게 관측될 것으로 예상된다.

혜성의 꼬리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나가가는 29일(한국시각)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도심에서 아이손의 전체 모습을 관측하기 좋은 날로 17일을 꼽고 이날 오전 4~7시 '꼬리치는 혜성 아이손 공개관측회'를 과학관 천체관측소 일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다혜기자 yd@

코이카-한전 업무협조 약정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12일 오후 성남시 시흥동에 위치한 코이카 본부에서 한국전력공사(KEPCO)와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약정은 개발도상국의 전력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성을 골자로 기획됐다. 양 기관은 개도국 전력 기술 교육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공항공사 '애플 어워드' 금상

한국공항공사가 11일(현지시간)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3 그린 애플 어워드(The Green Apple Award)' 국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공항공사는 전 세계 공항에 적용이 가능한 LED 항공등화 18종을 2008년부터 개발해 공항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기업-영세슈퍼 물품공급 협력…'1마트1전통시장' 자매결연 체결

유통업계 '신 상생로드'

유통업계의 슈퍼마켓 상품공급 사업과 관련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롯데슈퍼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4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유통산업주간' 행사를 맞아 5개 항으로 이뤄진 상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물품 공급 등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체인협동조합과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고, GS리테일과 홈플러스도 동참키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해 대형 유통업체가 협회를 통해 영세 슈퍼마켓에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대형 마트의 점포 운영 기법을 영세 상인에게 전달하고 환경개선 사업과 자체 상표 제품을 개발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롯데슈퍼는 올해 안에 10여 개 지역슈퍼조합과 공동구매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물류센터 태스크포스를 공동 구성해 운영 표준 매뉴얼을 제작키로 협약서에 명시됐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형 마트의 영세 슈퍼마켓에 대한 상품공급 사업과 관련해 변형된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협약 체결로 새로운 사업 방식을 통한 양측의 절충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날 행사장에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과 상생 발전 양해각서 체결식도 열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형유통업계와 전통시장은 앞으로 '1점포 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맺고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 및 제품 매입 ▲지역 주민 고용 확대 ▲지역 협력회사 활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지역마다 대형 유통업계와 전통시장 간 자율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협의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장형일기자 ... @metroseoul.co.kr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컨퍼런스 질병관리본부가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2013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생명나눔 관련 분야별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종교계 홍보 전문가 등이 참석해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홍보위원회'를 발족했다. /손진영기자 son@

비정규직 파업 경기 일부학교 '밥 대신 빵'

경기도 지역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4일 부분 파업에 나서자 일부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생기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경기도 내 초·중·고교 중 138개교의 점심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됐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원 759명이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

참여 노조원은 조리실무사 485명, 행정실무사 153명, 조리사 65명, 영양사 9명, 특수교육실무사 12명, 사서 15명 등이다.

일부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은 파업 참여 노조원 중 561명이 조리실무사 및 조리사와 배식보조, 영양사이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930명인 수원 삼율초등학교는 조리종사자 9명 전원이 파업에 참가해 점심을 빵과 떡, 음료와 요구르트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조현정기자 jhj@

14일 낮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으로 빵과 우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못된 고교생 "침 뱉지마" 훈계 어른 폭행범 신고
몹쓸 여중생 만취 상태 연행된 파출소서 난동

고등학생에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하는 어른을 폭행범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A(37)씨가 B(17)군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모여 침을 뱉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거리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고 훈계하고 두 차례 가볍게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여중생들이 파출소로 연행되고도 난동을 피워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12일 밤 수원의 한 호프집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소주 7병을 나눠 마신 C(16)양 등 10대 여학생 10명과 호프집 사장 D(48)씨를 파출소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원 소재 중학교 학생들임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인계하려고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술 취한 여학생들은 이를 거부,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조현정기자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거절된적 있으십니까?
100만원 누구나! 무상담대출
저도 되네요!
완전 쉽던데요!
정말 빠르고
편리하네요!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metro Sweden

한국 그룹 '빅스' 스톡홀름서 뮤비 촬영

메트로 스웨덴이 한국의 6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빅스(VIXX)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최근 공개된 빅스의 타이틀곡 '대다나다 너(Only you)'의 뮤직비디오의 촬영 배경이 스웨덴 스톡홀름의 거리를 배경으로 흥겨운 분위기다. 노래를 부르는 여섯 명의 빅스 멤버들 뒤에는 스톡홀름의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펼쳐진다. 빅스는 스톡홀름에서 뮤비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지난 2일 오스스피어턴 극장에서 K-팝 그룹 중에는 처음으로 쇼케이스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Colombia

도심 광장 바닥 껌 떼러 어린이 총출동

12일 콜롬비아 보고타 중심에 자리한 볼리바르 광장에 어린이들이 모였다. 소풍도 아니고 역사 탐방도 아니었다. 바로 바닥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껌을 떼어내기 위해서다. 볼리바르 광장은 콜롬비아의 역동적인 역사 그 자체다. 하지만 많은 시위대가 내뱉은 일명의 공간이 지금은 껌 찌꺼기에 자리를 내준 지 오래다. 보고타시 당국은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껌을 떼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함부로 껌을 뱉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metro Russia

몸짱들의 춤판 눈이 휘둥그레

최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근육질 몸짱들이 참여한 비키니 보디 선발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러시아와 유럽에서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4000명이 온라인에서 시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피트니스 하우스 그랑프리 러시아 더 유럽'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이번 대회는 피트니스 비키니, 폴댄스(봉춤), 순수 보디빌더 모델 등 세 부문으로 나눠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경기는 폴 댄스였다. 러시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서 온 여성 보디빌더들은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를 뽐내며 날렵하고 유연한 폴댄스를 선보였다.

예카테린부르크에 사는 여성 참가자 나탈리아 토마쇼바는 "즐긴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며 "원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검음악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심정을 노래한 곡을 골랐는데 내가 겪었던 가슴앓이와 비슷해 무대에서 감정 이입이 잘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크라스노야르스크시에서 온 또 다른 참가자 율리아 코자나는 "보디빌더들의 춤 실력이 매우 뛰어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였다"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피트니스 비키니 모델과 순수 보디빌더 부문은 워킹과 프리 안무 경기로 나뉘어 진행됐다. 피트니스 비키니 모델로 활동 중인 알레나 나제즈니나는 "나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비키니, 폴댄스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향후 다른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트레이닝 코치 및 시설 지원 혜택,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

/율리 오키아니코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내겐 너무 홀~쭉한 그녀"

몸무게 140kg 여성과 결혼한 63kg 신랑 "100kg으로 늘려 잘 어울리는 부부되겠다"

몸무게가 140kg인 중국 여성이 우여곡절 끝에 천생배필을 만나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허난성 자오쭤시에 사는 창칭화(25·사진 왼쪽). 그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관계자의 제안으로 맞선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 하지만 몸무게가 140kg이나 나가는 탓에 18차례나 참여했지만 '짝'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창칭화는 인터넷에서 류루라는 남성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할수록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고 서로 사는 곳도 가까웠다. 인터넷에서 만난 지 4개월만에 둘은 직접 만나 식사를 했다. 그렇게 서로 실물을 본 뒤 나흘 만에 류루가 창칭화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의 부모는 처음에는 교제를 반대했다. 먼저 창칭화의 어머니는 "남자가 너무 작고(167cm) 말랐다"며 마뜩잖아 했다. 하지만 류루의 진심을 듣고는 결국 교제를 허락했다.

류루의 부모 역시 "아가씨 몸무게가 아들의 두 배라 어울리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에 창칭화는 류루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했다. 과일과 우유만 먹으며 10kg을 감량했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류루는 창칭화가 뚱뚱하지만 성격이 낙천적이고 효심이 깊다며 지속적으로 부모를 설득해 결국 두 사람은 양가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교제할 수 있었다.

양가의 난관은 극복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밖에 돌아다닐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류루는 길을 가다 창칭화의 신발끈이 풀리면 바로 쪼그리고 앉아 신발끈을 매주는 등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지난 6월 28일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후 류루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살을 찌우기로 결심했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몸무게가 이미 63kg에서 81kg으로 늘었다. 그는 "아내에게 더 어울리는 남편이 되기 위해 100kg까지 몸무게를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창칭화는 "남편은 엘리베이터 수리기사고 나는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한 뚱보 부부가 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정리=조선미 기자

주연테크 컴퓨터

주연테크 컴퓨터는 Windows 8 을 권장합니다.

주연테크 고객감사 '초특가' 한정판매!

운수대통S324A + 20형 LED모니터 포함

789,000원

운수대통 G23A

-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G2030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4GB(1066MHz) DDR3 RAM
- S-ATA2 500GB HDD(7200RPM)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579,000원

엑설런트 V347C

- 인텔® 코어™ I5-347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8GB(1066MHz) DDR3 RAM
- S-ATA2 500GB HDD(7200RPM)
- nVidia Geforce GT630(1GB)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899,000원

엑설런트 AV357H

- 인텔® 코어™ I5 3570 프로세서
- Windows® 7 Home Premium
- 인텔 H61 익스프레스 칩셋
- 8GB(1066MHz) DDR3 RAM
- S-ATA2 1000GB HDD(7200RPM)
- nVidia Geforce GTX650(1GB)
- M-DISC • 5.1채널 사운드 지원
- 10/100 LAN내장

999,000원

공통사양

구입문의

070-7600-2375

주연테크 쇼핑몰에 오시면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jooyon.co.kr)

컴퓨터 구입! 왜? 주연테크 컴퓨터 일까요?

주의사항

하드웨어 24개월 무상수리!

Made in Korea

365일 서비스 상담전화

1588-1118

친환경 친건강 컴퓨터

출장 A/S 저녁 9시까지 연장!

탄탄한 기업 주연테크

소프트웨어 1개월이내 1회 무상서비스!

고객님의 말씀을 대표이사가 직접 듣습니다.

주연테크 컴퓨터 www.jooyon.co.kr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코스닥
1997.56 (+4.00)	511.75 (+6.15)
금리	**환율**
2.84	1067.50
(변동없음)	(-5.00)

뉴스&뉴스

제주감귤 반값행사 롯데마트가 오는 20일까지 신한, 삼성, KB국민 카드로 결제하면 제주산 냉동 감귤 등 먹거리 사이즈를 최대 50% 할인한 1000원, 4000원, 75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

●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개월 연속 동결 조치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주요국의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 가능성 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저축銀 학비대출 심사강화

●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면 순수 학업 관련 대출, 고금리 전환자금 용도만 허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생 차녀가 급격 줄이고, 소득이 없음에도 저축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계획 가정 불화가 생겼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월수출 500억달러 첫 돌파

● 한 달 수출액이 사상 첫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관세청은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통해 수출액이 504억9300만 달러로 전달보다 13% 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7.2%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입은 전달보다 11.2% 늘어난 456억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회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250-2100
독자센터	02)721-9837

2002년 5월 24일 창간 | 일반일간 서울특별시 가00056

임플란트 사술후 1년간 무료AS 받는다

인공치아인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료로 재시술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시술 방법, 시술 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사술 재료를 환자와 합의해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 의사는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과 하자에 대한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잘못으로 시술 실패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의사가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제4이통의 '5수 도전' 잘될까

미래부에 신청서 제출한 KMI "가계통신비 30% 절감"

과연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다섯 번째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KMI 컨소시엄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4이통 사업권 신청서를 제출한 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KMI가 제4이통 사업자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2009년 결성 이후 와이브로 방식으로 네 차례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다섯 번째 도전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출 수 있는 데다 방식도 LTE TDD 방식으로 전환해 신청했다. 설립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 규모로, 허가 이후 범안설립 즉시 현물출자 470억원을 납입받아 9000억원으로 증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6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120일 이내에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공종렬 KMI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통이 개시되면 기존 대비 30% 이상 가계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MI 측은 기본료를 현행 월 기본료 1만2000원에 초당 1.8원 수준인 음성통화 요금을 월 기본료 8000원에 초당 1.4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월 기본료 3만원에 LTE 기반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해 음성통화와 결합하는 경우 3만8000원의 기본료를 1만원 할인한 2만8000원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KMI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2015년 4월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에서 지역 서비스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군 단위 이하 지역까지 망 구축을 완료해 전국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스마트 양탄자' 타고 행복주택 가상체험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2013스마트 국토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공간정보 기술로 구현된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행복주택을 가상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사 기본혜택 5년간 못 줄인다

제휴서비스도 '1년 의무'

카드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 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된다. 제휴 부가 혜택도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의무 유지해야 하며 폐지할 경우 고객에게 6개월 전까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가 부가 혜택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고 슬그머니 서비스를 없애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카드사의 부가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은 카드 출시 후 기존 1년에서 최소 3년간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 무리한 부가 혜택을 담은 카드 상품을 출시한 뒤, 이후에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여 문제가 됐다. 신한카드는 최근 제휴 업체 사정을 이유로 무려 100여 종 카드의 발급 중단을 불과 이틀 전에 발표했다. /유현방기자

금융주 '공매도 금지' 5년만에 해제

전문가들 "단기적 주가 부담"

금융주에 대해 5년간 묶여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14일부로 해제되면서 금융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업종의 주가는 동반 하락했다. 증권업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20% 떨어져 전 업종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금융업(-0.56%), 은행업(-0.42%)도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10월에 금융위기를 이유로 금융주에 적용한 공매도 금지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파는 투자 기법이다. 하락 장세에서는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적 수요가 들어올 경우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금융권의 자본 확충과 부실 등도 개선됐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공매도가 늘어나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형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럽 사례를 보면 금융주 공매도 금지가 철회된 이후 유동성과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전체 지수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가옥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2009년에 비금융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직후 지수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는 기존 흐름을 되찾았다"며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2.8%)이 낮은 금융주의 경우 영향이 더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hkim1@

지상파, 중간광고도 먹나

방통위, 허용 시사 이어 KBS수신료 인상도 적극
광고매출 61% 점유한 지상파에 '온갖 특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지상파3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KBS가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 지상파3사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일부 프로그램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방송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지상파에 중간광고까지 길을 터주면 시장의 불균형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출입기자와 만나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광고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방송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말에 광고제도 자체를 바꾸면 어떨지 실무진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업계뿐 아니라 경제권 등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는 국내 방송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과 시장점유율에서 60~70%를 확보하고 있다.

2012방통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나온 국내 방송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광고 매출은 약 61%를 점유했다. 특히 지난해 지상파 3사 방송 매출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8회의 방송 관련 법령 개정 중 제도 개선(규제 완화)이 4회에 이른다. 이 중 3회는 지상파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라는 게 방송업계의 시각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는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허용에 이어 심야방송까지 가능케 됐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에도 적극적이다. 이경재 위원장도 지난달 종순 방통위 국감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답변했다. 방송업계에서는 월 1000원의 수신료가 인상되면 2000억원의 추가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가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 중인 700MHz 주파수 할당도 지상파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UHD TV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상파에 7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폭도 지상파로 넘겨 UHD TV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개균기자 kssat@metroseoul.co.kr

아베오. 카마로 2014년형 첫선 한국지엠이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쉐보레 전시장에서 2014 아베오RS(앞쪽), 2014 카마로RS(뒷쪽)의 신차발표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가속 빠르고 충전 편하고

전기차 SM3 Z.E. 시승기
각종 세제혜택 받을 경우 기존 준중형 가격과 비슷

르노삼성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르노삼성은 12~13일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SM3 Z.E. 시승회를 열고 전기차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기술적으로는 2012년 시승회에 나온 차와 달라진 게 없다. 다만 2012년에 공개됐던 차가 일본 AESC의 배터리를 사용한 반면, 국내 양산 모델은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차이점이다.

시동을 거는 대신 전원을 넣고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으면 차는 미끄러지듯 달려나간다. 가속감은 빠르다. SM3 1.6의 0→50km/h의 가속 시간이 5.9초인 반면, SM3 Z.E.는 4.1초에 불과하다. 이는 엔진과 달리 출발부터 최대 토크를 내는 전기차의 특성 덕분이다. 속도가 올라가도 소음이 거의 없고 무단변속기 덕에 부드러운 변속감을 주는 점도 이 차의 특징이다. 최고시속이 135km로 조금 낮긴 하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충분하다.

전기차를 운용할 때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충전 시간과 인프라 충전비용이다. 교류(AC) 방식을 이용하는 SM3 Z.E.는 일명 '카멜레온 테크놀로지'로 불리는 르노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AC 3kWh 완속 충전(3~4시간 소요)부터 AC 43kWh 급속 충전(30분만에 80% 충전 가능)까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개발 초기 6400만원이던 가격은 세제 혜택으로 4200만원까지 떨어졌고, 지자체에 따라 최대 2300만원(제주도의 경우)까지 지원받는다. 따라서 기존 준중형차와 엇비슷한 가격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르노삼성은 국내 유일의 준중형 전기차로 시장을 리드한다는 계획이다. 폭스바겐 출신의 '영업의 달인' 박동훈 부사장이 보급을 장담하고 있어 르노삼성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착한 소셜커머스 '초콜릿'서 쇼핑해요 SK플래닛은 14일부터 연말까지 T멤버십 고객 대상 소셜커머스 서비스 '초콜릿'을 통해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별도 할인 및 개발도상국을 도울 수 있는 상생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SK플래닛 제공

한달 전기 4분의1 삼키는 '전기밥솥'

취사보다 긴 보온 탓…1년 기준땐 에어컨보다 더 먹어

짠순이 경제학

전기밥솥이 '전기세 먹는 하마'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우선 전기밥솥의 '불편한 진실'부터 알아보자. 가정에서 시간당 소비 전력이 많은 가전제품은 에어컨(1750wh)이다. 다음으로 전기다리미(1255wh), 청소기(1155wh), 전자레인지(1150wh), 전기밥솥(1077wh, 취사 기준) 등의 순서다. 그러나 1년 기준으로 봤을 땐 순서가 뒤바뀐다. 전기밥솥(923kWh, 취사·보온)이 가장 많이 소모되고, 냉장고(560kWh), 에어컨(358kWh), TV(299kWh), 김치냉장고(187kWh) 순이다. 다시 말해 가동 시간이 긴 제품들이 전기를 잡아먹는 복병이란 얘기다.

평균적으로 밥 짓는 1시간 동안 1071wh, 보온하는 13시간 동안 1309wh의 전기를 쓴다. 한 달 쓰면 75kWh다.

서울 한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16kWh면 절반 감안하면 집에서 쓰는 전기의 약 4분의 1을 전기밥솥이 소비하는 셈이다. 만약 남은 밥을 며칠씩 보온 상태로 둔다면 전기 사용량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결국 전기밥솥은 보온 시간만 절반으로 줄여도 한 달에 21kWh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 특히 전기밥솥은 취사 할 때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고 하니 꼭 유의해야 한다.

전기밥솥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냉동밥'이다. 한번에 충분한 양의 밥을 지어서 냉동밥을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방법이다.

갓 지어낸 밥은 밀폐용기에 나눠 담고, 살짝 식힌 후에 뚜껑을 닫으면 된다. 뚜껑에 이슬이 살짝 맺힐 때 냉동실로 직행하면 끝! 그래야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그 수분으로 촉촉한 밥이 된다고 한다. 밥째 하나당 전자레인지로 2분 돌리면 갓 지은 밥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밥솥의 취사나 보온 기능 대신 압력밥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민지기자 minji@

요즘 건설사 '층간소음 허물기'중

바닥 두께 늘리고 배수관 이동 · 공법 대수술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층간소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아랫집 여자의 항의가 너무 심하다. 죽이고 싶다',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살인이 이해가 된다' 등의 과격한 글들이 수십 개씩 올라와 있다. 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뉴스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소식이 보도되기도 한다.

한 아파트의 경비실 관계자는 "윗집 자녀들 뛰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아래층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매일 쇄도한다"며 "마늘 찧는 소리나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발굽 소리, 위층 여자씨의 잦은 기침 소리 등을 줄여달라는 항의가 올 때는 이를 윗집에 전하기가 난감하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정부는 내년 5월부터 바닥 구조 기준을 강화, 소음을 잡겠다고 나선 상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건설사들도 최근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위례신도시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에 층간소음 완화재를 일반 20mm보다 10mm 두꺼운 30mm로 강화했다. 여기에 욕실 바닥에 배수 배관을 설치해 위층에서 들리는 오수와 배수의 소음을 줄여주면서 세대별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한 층간소음 절감형 배관 시스템을 적용했다.

대우건설이 같은 위례신도시에서 선보인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는 소음 차단 효과가 큰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다. 이 구조는 건축물 뼈대를 구성하는 방식 중 하나로, 상층부 무게를 내력벽으로 모두 지탱하는 벽식 구조와 달리 기둥을 통해 하중을 전달한다. 상하층부 바닥판과 내벽이 하나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연결된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이 훨씬 덜하다.

또 요진건설산업이 고양시 백석동 일대에 짓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는 법정 기준보다 각각 70mm, 20mm 두꺼운 250mm 슬라브와 30mm 완충재를 적용했다. SK건설도 인천 남구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에 30mm 두께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 기술의 발달과 함께 벽체나 슬라브 두께가 얇아지면서 공사비는 절감됐지만 층간소음이 심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k@metroseoul.co.kr

유료 앱도 월정액으로 즐겨요

KT는 올레마켓,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앱 마켓의 유료 콘텐츠를 월 정액 5000원에 무제한 제공하는 올레 앱드림 서비스를 한주 월간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올레 앱드림 써볼래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KT 제공

"더미 인형, 고생 많다" - 꽃 바치는 예술가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비욘드 뮤지엄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와 김용호 작가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브릴리언트 마스터피스' 전에서 한 관객이 더미인형(자동차 안전도 실험 인형) 설치 작품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주택 거래 무려 59% 폭증

8·28대책 발표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으로 10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역대 10월 거래량 중 2006년 이후 최고치다.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발표한 '10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국적으로 9만281건의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35.9%, 전월 대비로는 59.1% 증가한 것이다.

주택 거래는 지난 6월 30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래 7~8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8·28 대책이 발표되면서 9월 이후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이 작년 10월보다 70.4% 늘어난 4만4059건이 거래된 가운데 서울이 1만3131건, 강남 3구가 1664건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방은 작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4만6222건을 기록했다. /박선옥기자

320억 깎은 '애플의 청구서' 의외네

삼성 상대 평결액보다 줄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평결보다 3000만 달러(약 321억원)나 낮췄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3억2000만 달러(약 3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3억7978만 달러로 제시했다.

특히 보유자인 애플이 상실한 이익 1억1378만 달러, 피고인 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 사용료) 3463만 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모두진술에서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5270만 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 일정은 일단 19일 혹은 20일까지로 잡혀있으며 일정과 전례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1일, 늦으면 23일께 새 평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 /이국명기자 kmlee@

구글 '끼워 팔기'에 세계 유튜브족 분노

구글이 '끼워팔기'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유튜브 이용자에게 댓글 작성 시 SNS 서비스인 '구글 플러스' 계정에 로그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구글 플러스는 구글판 페이스북으로 구글 e메일인 지메일 계정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튜브에서 임의로 개설한 계정으로 댓글을 달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됐다. 댓글 공유 범위도 자동으로 '전체 공유'로 설정돼 누구나 다른 사람이 올린 댓글을 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댓글에 작성자의 아이디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또 댓글을 달 때 친구, 가족, 지인 등으로 공유 범위를 설정하도록 바뀌어 댓글 노출과 공유 범위가 제한될 여지를 만들었다.

이에 전 세계 이용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외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change.org)에는 유튜브 댓글 달기에 구글 플러스 계정을 연동하는 정책을 취소하라는 청원에 10만 건이 넘는 서명이 달렸다. /이재훈기자 ryu@

48분 일해야 빅맥 한개 사는 한국

OECD나라 중 최저임금 14위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 구직 포털 알바몬이 14일 OECD 22개 국가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 3.98달러로 OECD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16달러의 호주였으며 프랑스 11.73달러, 벨기에 10.39달러 등의 순이었다. 일본은 9.24달러로 8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486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521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빅맥 햄버거 한 개를 사 먹기 위해 걸리는 근무시간은 약 48분으로 집계됐다. 빅맥 구입에 가장 적은 근무시간을 보인 국가는 호주로 약 18분을 기록했다. /황윤희기자 unique@

다음 '은밀하게 위대하게' 2 연재

인기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시즌 2로 재탄생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4일부터 훈(Hun) 작가의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 시즌 2 연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동명 영화로도 제작돼 690만 관객을 불러모았다.

시즌 2의 제목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유일하게'로 결정됐으며 다음 '만화속세상'(webtoon.daum.net)과 다음 웹툰 앱에서 매주 월·목요일에 만날 수 있다. /황윤희기자

건강기능식품 드라마에 녹아들다

제약사 PPL 마케팅 활발 뮤직비디오에도 간접광고

제약업계가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PPL(Product Placement) 광고 마케팅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거부감 없이 무의식적으로 제품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온라인 사용 보편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방송 나들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PPL

제약업계 PPL 하면 세간의 화제였던 tvN '꽃보다 할배' 에서 배우 이서진이 꽃할배들에게 건넨 비타민이 먼저 떠오른다. 고된 해외여행으로 지친 꽃할배들의 건강을 위해 수분과 함께 간편하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바이엘헬스케어의 발포비타민 '베로카' 퍼포먼스다. 또 바이엘헬스케어는 지난해 SBS '신사의 품격'과 MBC '빠담빠담'에서 주인공이 즐겨 먹는 비타민으로 협찬하는 등 활발하게 드라마 협찬을 진행한 바 있다.

영화 '연가시'에는 조아제약이 등장했다. 영화상에서는 악덕기업으로 나오지만 조아제약은 연가시의 해독약인 '윈다졸'을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제약사와 명칭과 제품이 그대로 사용돼 인지도 만큼은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휴온스는 SBS '샐러리맨 초한지'에 자사의 의약품 연구소·공장 등을 직접 등장시키기도 했다.

◆뮤직비디오까지 등장... 당분간 PPL 지속될 듯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에서도 간접광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하이트진로와 너블에이 등 다양한 업체가 제품 협찬을 진행했는데 그중에는 (주)메디카코리아의 휴대가 간편한 주머니 비타민 '비타민트'도 포함돼 있었다.

또 (주)메디카코리아는 신예 뮤지션 대원의 뮤직비디오 '미치도록'에 비타민트 제품 협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제약업계의 방송가 나들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청률에 따라 PPL 효과의 차이가 크지만 소비자와 직접 눈을 맞추며 소비자에게 제품을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프로그램에 따라 '대박' 상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감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PPL은 기업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품의 매출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앞서 있었던 좋은 예로 인해 제약업계의 PPL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트라젠타' 출시 1년만에 1위 제약업계 빅3 시너지의 힘!

시크릿 노트

요즘은 어디를 가든 빅 3 열풍이다. 프로농구에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경희대 빅 3, 올 시즌을 마친 프로야구는 자유계약선수(FA) 빅 3, 주식시장 등 산업군에서도 연일 빅 3 소식이 먼저 쏟아진다.

뜬금없는 빅 3 얘기에 의아하겠지만 지금 제약업계에서도 최고를 향해가는 빅 3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릴리, 그리고 만년 2위의 설움을 떨치고 올해 국내 제약 시장 정상을 넘보는 유한양행이다. 이들은 제약업계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3사 협력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국내에서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를 판매해오고 있다.

사실 트라젠타는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DPP-4 억제제 중 4번째로 나온 후발 주자다. 선발 제품들이 관계히 적은 장점을 어필했지만 후발 주자가 선두를 따라잡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트라젠타는 기어이 단일제 중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트라젠타는 정상을 지키던 '자누비아'를 1억원 차이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9월 역시 마찬가지. 출시 1년 만에 이룬 빅3의 쾌거인 것이다.

이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탄탄한 연구 개발 역량, 일라이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관련 파이프라인과 전문성, 유한양행의 마케팅과 영업력이 모아져 창출된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게다가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릴리는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 20년 이상 협력키로 하는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으며 유한양행 역시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정상에서 제약업계 빅 3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기대가 된다.

/황재용기자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사장,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이사, 데크 맨니커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사장(왼쪽부터 차례로)은 '트라젠타'의 국내 출시 1주년을 맞아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당뇨환자에 '푸른 희망' 전해요 대한당뇨병학회가 '세계당뇨병의 날'을 맞아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푸른빛 점등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당뇨병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마련됐으며 그동안 남산타워, 국회의사당, 청계천 등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는 지난 600여년간 대한민국 역사와 시민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온 광화문 광장에서 푸른빛을 밝히며 당뇨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제공

"국내 신약 가격 OECD 평균 42% 수준 불과"

국내 신약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보건의료정책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선별 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도입된 신약과 이후 도입된 제품 중 특허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신약의 가격을 OECD 회원국 및 대만을 포함한 30여 개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등재 신약 소매 가격은 OECD 평균 가격의 42%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신약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돼 우리나라의 신약 가치가 심각하게 평가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최고가 품목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최저가 품목은 147개였다.

/황재용기자

뉴스 & 뉴스

하반기 신입사원 80명 공채

● **JW중외그룹**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JW중외그룹은 마케팅·영업·생산·연구·개발(R&D) 분야에서 80여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오는 18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오는 21일 정오까지 JW중외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망막 관련 앱 '레티나' 출시

● **노바티스**가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인 망막 애플리케이션 '레티나 앱(Retina App)'을 출시했다. 앱은 사용자와 친구들의 사진을 활용한 맞춤형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공해 망막질환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사야가 어떻게 보이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앱이다. 또 노바티스는 최근 망막질환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 'Set Your Sights'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 올바른 약 복용 교육

●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 시내 여자고등학교 11곳을 방문해 '아는 것이 약' 청소년 올바른 약 복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안전한 약 복용, 잘못된 약 상식 바로잡기 등에 대한 전문의 강연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상반기에 서울지역 34개 여자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총 1만16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롤? 신경 안써…'히어로즈'는 독보적"

'지스타 2013'서 만난 블리자드 스타개발자 데이비드 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스타 개발자 데이비드 킴(31)이 지스타에 모습을 드러냈다.

킴은 14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행사장의 블리자드 부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온라인게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하 '히어로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히어로즈는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총출동해 전투를 하는 AOS 장르다.

이 게임은 이전까지 '블리자드 도타', '블리자드 올스타즈' 등으로 불렸으나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게임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같은 장르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경쟁할 것으로 기대된다.

킴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종족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밸런싱' 작업을 하고 있으며 히어로즈에서도 유사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통 개발자들은 한 가지 게임에 올인하지만 킴은 두 가지 게임을 모두 다룰 정도로 블리자드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인이다.

-영웅들이 총출동하는데, 특별한 캐릭터를 미리 알려달라

▲블리자드 라인업에서 유명한 캐릭터들이 거의 등장한다. 한국이 자랑하는 프로게이머 임요환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다. 초상권 등 복잡한 문제들 해결해야 하지만 그만큼 가능성이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AOS 장자 '리그 오브 레전드'와 넥슨의 '도타 2'가 버티고 있다

▲스타크래프트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게임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만의 개발 방식으로 게임을 만들면 된다. 다만 개발자도 플레이하고 싶은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히어로즈의 경우 다른 AOS 게임에 비해 팀워크가 중요하며 전장에서 진행되는 플레이가 잦다.

-한국에서는 요즘 게임을 마약처럼 중독물질로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규제가 없다. 게임이 문화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게임 규제에 대해 발언한 것에 100% 공감한다.(모하임은 지난주 열린 블리즈컨에서 "한국은 뛰어난 게임 콘텐츠 생산지다. 그러나 게임 규제는 외국계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의 수출과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역설했다.)

-매년 지스타를 찾는 편인데

▲중국 차이나조이, 미국 블리즈컨과 비교해보면 지스타가 훨씬 뛰어나다. 시연 장소의 안락함, 부스의 완성도나 꼼꼼함 등이 그렇다. 전시장을 참보할 때의 느낌이나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낫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블리자드의 데이비드 킴 선임 디자이너가 신작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설명하고 있다.

롤드컵 윈터 15일 개막 스타플레이어 총출동

라이엇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최고 스타 플레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CJ E&M 게임 채널 온게임넷은 '판도라TV LoL챔피언스 윈터 2013~2014' 개막전을 15·16일 '지스타 2013'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금요일 경기는 LOL 챔피언스 지난 시즌 우승팀이 총출동한다. 서머 시즌에서 1위를 차지한 'SK텔레콤 T1 K팀'이 '팀 NB'를 상대하고 지난해 윈터 우승팀 '나진 블랙소드'와 스프링 우승팀 '삼성 오존'이 각각 'IM #2팀', '에일리언웨어 아레나'와 맞대결을 펼친다.

이번 16강 풀리그는 매 경기 두 세트씩 진행된다. 두 세트를 모두 승리하면 3점, 세트 스코어 1-1경우 승점 1점을 얻는 홈 앤 어웨이 방식이다.

온게임넷 관계자는 "톱 라이너 마린, 참겸환을 포함해 다수의 멤버를 새롭게 영입한 SKT T1 S팀을 비롯, '롱판다', 김균재가 이끄는 '팀 NB'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클랜스 이신으로 유명한 조은나래가 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막전은 온게임넷·판도라TV·KM플레이어·네이버·다음·아프리카 티빙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미주 지역을 포함해 유럽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트위치TV·데일리모션·O 게이밍TV·텐센트, 절환을 통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국현기자 lonlee@

대통령상 받은 'MMORPG 대부'의 호통 소감

엑스엘게임즈 송재경 대표 '화제'

엑스엘게임즈 송재경(사진) 대표가 돌직구 수상 소감으로 화제를 모았다.

13일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아키에이지' 엑스엘게임즈의 송 대표는 최근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의 게임업계 종사자분들께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국회의 '게임 4대 중독법' 추진

이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명 '게임 4대 중독법'을 겨냥한 듯 "17년 전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를 만들 때는 대한민국에 게임 산업이란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정상급의 문화 콘텐츠를 만든 산업이 됐다"면서 "그동안 우리 게임업계는 특혜를 받은 것도 없는데 역차별과 규제 속에서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일갈했다.

이날 아키에이지는 대상 이외에도 기획·시나리오 부문과 그래픽 부문의 기술창작상 2개 분야를 수상하며 3관왕에 오르는 겹경사를 맞았다.

송 대표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아버지'란 별칭이 있는 국내 대표 게임 개발자다. 1998년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함께 '리니지'를 개발하고 2000년 엔씨소프트 부사장 및 개발 총괄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게임대상 수상을 기념해 이용자들에게 '거대한 오박 머리' 소환 행사를 16일까지 진행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모바일 한계 넘은 3D전투 "온라인 못잖네"

넥슨 신작 '영웅의 군단' 공개

넥슨이 신개념의 모바일게임을 공개했다. 2D 방식의 아기자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닌 기존 모바일게임과 달리 3D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온라인 MMORPG와 같은 게임을 만들었다.

넥슨은 14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현장에서 모바일 풀3D MMORPG '영웅의 군단'을 공개했다.

신작은 '군주', '아틀란티카', '삼국지를 품다' 등 다수의 전략 MMORPG를 흥행시킨 김태곤 총괄PD의 차기작이기도 하다.

판타지 세계를 정복하려는 암흑 군주에 맞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120여 종의 다양한 영웅을 직접 육성하고 지휘하며 자신만의 팀을 구성하는 전략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카드 조합으로 영웅을 키우는 '영웅 고용 시스템'과 간편한 조작법, 페이스북 연동 등을 통한 커뮤니티 기능도 제공한다.

'영웅의 군단'은 이르면 다음달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시험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신작을 미리 체험한 유저들은 "전투를 제외하면 온라인 MMORPG와 비슷하다. 스토리 전개와 웅심, 보스와의 전투 장면 등 모바일게임이 맞나 싶다"며 극찬하고 있다.

김태곤 총괄PD는 "PC 온라인 버전을 함께 준비 중이다. 갤럭시S2나 갤럭시노트1 정도면 충분히 원활한 구동이 가능할 정도로 기기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부산=박성훈기자 zen@

'신의 오일' 아르간, 건조할때 톡톡!

올리브오일 대비 비타민E 2배·보습력 4배 피부·모발에 바르는 세럼·앰플·밤 제품 다양

머리카락이 점점 푸석해지고 온몸에 근질근질 하얀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습도가 점차 낮아져 몸이 건조해지고 있다는 징조다. 이런 가운데 아르간 오일 제품이 겨울철 피부 보습을 돕는 뷰티 스페셜리스트로 각광받고 있다.

◆피부 항산화·탄력유지 효과

아르간 오일은 예로부터 모로코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서 여인들의 피부 보습을 지켜주는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아온 오일 중의 오일이다. 비타민E 성분이 올리브 오일의 2배 이상 함유돼 있어 강력한 항산화 기능으로 피부의 인체의 산화를 방지해준다. 올리브 오일 대비 4배가 넘는 강력한 보습 효과로 모발과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가꾸어주고 탄력 유지 효과가 있어 '신의 오일'로 불린다.

아르간 오일의 80%는 천연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약 45%는 올레인산으로 구성돼 있다. 올레인산은 모발과 피부 친화성이 높아 흡수가 빠르고 각질의 수분을 유지하는 세포간 지방질(세라마이드)을 보충해줘 모발과 피부를 유연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통 보습

겨울철 찬바람은 모발 속 영양까지 앗아가 모발을 푸석하게 만든다. 미장센의 '데미지 케어 퍼펙트 세럼'은 아르간 오일의 강력한 보습력과 항산화 효능을 활용해 손상된 모발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또 모발의 조직력과 보습력을 강화해 거친 손상모를 한 올 한 올 매끄럽게 가꾸어 윤기를 찾아줘 모발 정전기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스킨, 로션, 에센스까지 바르고도 얼굴이 땅기면 아르간 오일 성분의 앰플을 사용해보자. 네이처리퍼블릭의 '아르간 20도 리얼 앰플'은 아르간 오일을 20도에서 저온 발효한 특허 기술을 적용해 영양감과 보습력을 높였다. 바오밥나무 추출물, 모링가시드 오일 등 강인한 자생력을 지닌 아프리카 지역의 5가지 성분이 탄력까지 케어해 탱탱하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발과 다리의 관리를 위해서는 휴대 가능한 밤(balm) 타입 제품을 수시로 발라 각질을 잠재우자. 에뛰드하우스의 '메니별21'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피부의 장벽 기능을 도와주는 천연 아르간 오일과 자극 완화 및 역건성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겨우살이 추출물이 함유돼 있다.

/정해림기자 press@metroseoul.co.kr

한경희뷰티 정기세일 미백시트 4매도 증정

㈜한경희뷰티는 25일까지 11월 정기 빅 세일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경희뷰티 홈페이지(www.HAANbeauty.com)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슈베리 버블 클렌저 등 인기 제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우선 5에이징 허밍뷰러 래쉬 마스카라'를 30% 할인된 2만7300원에, 스테디셀러인 슈베리 버블 클렌저 2개를 60% 저렴한 1만4600원에 선보인다.

특히 이벤트 기간에 세일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에스테틱 RX 미백시트 4매를 증정하는 등 푸짐한 경품 행사도 함께 벌인다. 문의 www.HAANbeauty.com

그랜드힐튼 알파인 델리 칠면조 요리 시즌 '손짓'

그랜드 힐튼 서울은 알파인 델리에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칠면조 요리를 판매한다.

알파인 델리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칠면조를 요리하는데 우선 칠면조 요리의 셀미를 기르는 양념인 소금, 설탕, 레몬, 파슬리 등의 재료를 물과 혼합해 직접 준비한다. 준비된 양념에 칠면조를 10시간 정도 푹 절인 후 170도의 오븐에서 표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운 후 칠면조를 무킹포일로 쌓은 다음 상온에서 3시간 정도 더 익히면 요리가 완성된다.

알파인 델리는 칠면조 외에도 오븐 감자·크랜베리 소스·지블렛 소스 등의 메뉴와 전통 스터핑 디시도 준비한다.

모든 메뉴는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다. 문의 02)2287-8989 /[illegible]

핸드크림의 진화…올겨울 손이 호강

문지르면 따뜻해지고 바르면 콜라겐 생성돼 기능성 신제품들 눈길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바로 손이다. 거칠어진 손을 촉촉하게 가꿔줄 '신상' 핸드크림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시어버터, 디시마 추출물 등 천연 보습 성분을 풍부하게 담았다.

더샘은 아프리카 시어버터를 함유한 '글로벌 에코 시어버터 핸드크림' 3종을 선보였다. 문질렀을 때 열을 내는 '쉬밀케어 모멀씨손팩' 및 피로 해소를 도와주며 미백과 주름을 한번에 케어한다. 바닐라·플라워·사막 로즈·레몬그라스 등 은은한 향이 기분까지 좋게 해준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시어버터 성분을 고온 스팀 공법으로 안정화한 '핸드 앤 네이처 핸드크림' 18종을 내놨다.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텍스처와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고, 미니 사이즈로 출시돼 휴대가 간편하다.

리리코스의 '마린 오키드 핸드크림'은 고보습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다. 미역, 다시마류에서 추출한 보습 인자를 함유해 오랜 시간 깊은 보습감을 부여하고, 아데노신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주름지기 쉬운 손에 탄력을 더한다.

◆심하게 건조할 때 긴급 처방 팁

건조한 공기와 찬 겨울바람에 노출되면 손이 갈라지고 거칠어지기 마련이다.

이땐 고보습 핸드크림을 충분히 바른 후 비닐장갑을 끼고 15분 정도 흡수시키면 어느 정도 건조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평소 손을 씻은 뒤에는 바로 핸드크림을 바르고 수시로 크림을 덧발라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좋다. /박지원기자

러닝화야 타이어야? 리복 신제품 'ATV 19'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리복이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산을 수 있는 신개념 러닝화 'ATV 19'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복 ATV 19는 오프로드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전 지형 만능카의 타이어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19개의 불규칙한 아웃솔 파드(밑창의 돌기)를 적용해 디자인이 독특하다. 19개의 아웃솔 파드는 달릴 때 진흙·눈·모래 및 풀이 잘 달라붙지 않도록 하며 효과적인 에너지 리턴율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내구성 및 마모 저항을 위해 탁탁한 합성섬유를 발가락 및 뒤꿈치 부분에 덧붙였으며 신발 앞과 목 부분을 패딩 처리해 착용감이 편안하다. 가격은 11만9000원. 문의 02)3446-4058

'노르딕 레이스' 참가 접수

뉴트로지나가 노르웨이전 포뮬러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1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제1회 노르딕 레이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노르웨이의 극한 추위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7km에 걸쳐 눈보라·노르딕 베리 숲 등 3가지 체험 코스를 마련했다. 다음달 2일까지 뉴트로지나 페이스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00명을 받는다. /박지원기자

'아비노' 새모델 애니스턴

한국 존슨앤존슨의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노'는 브랜드 전속 모델로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을 발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니퍼 애니스턴은 아비노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변화' 캠페인을 통해 자연이 피부에서 마음까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아름다운 변화를 선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세계가 즐기는 한류 디지털 매거진 '케이컬쳐'

6개 국어로 서비스 시작

소셜미디어그룹이 6개 국어를 지원하는 인터랙티브 글로벌 한류 디지털 매거진 '케이컬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K-팝·음원·패션·한류 음식·한류 뷰티·스타 인터뷰·스티 에어컴렐 등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한류 패션 거리 탐방 및 한류 관련 이벤트 등을 소개한다. 월간지 1회, 주간지 4회, 동영상 주간지 4회 등 총 월 9회 발행된다.

PC·태블릿 PC·스마트폰 등 5개 디바이스에 동시에 서비스되는 원 소스 멀티 디바이스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12월부터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도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그룹은 "인쇄 매거진과 전혀 다른 형태의 인터랙션 하이브리드 미디어를 실현했다"며 "고객과 광고주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디지털 매거진의 장점인 인터랙티브적인 요소를 모두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케이컬처는 홈페이지(www.kculture.tv)에서 검색, 구독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metro entertainment

팔도청춘 '팔팔한 사투리 배틀' 끌리네

응답하라 1994 신드롬 집중분석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가 전작 '응답하라 1997'(이하 '응칠')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과 농구대잔치 등이 인기를 얻었던 1994년을 배경으로 제작된 '응사'가 대학생들의 좌충우돌 일상을 완벽하게 풀어내며 '응사앓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총 20부작으로 제작된 '응사'는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으며 9일 방송된 8회는 순간 최고 시청률 8.6%(닐슨코리아)까지 치솟으며 자체와 프로그램 시청률을 능가했다. 쏟아지는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응사'의 숨은 인기 비결을 파헤쳐봤다.

/장병호기자 yew@metroseoul.co.kr

◆ 신예 스타들 어떻게 모였나

'응사'의 인기는 바로 주연배우들의 각양각색의 매력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연배우들의 캐스팅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신원호 PD가 2009년부터 눈독 들인 배우는

출연진·작가 살펴보니

부산출신 정우·여수생 민도희 지방색 가진 주연공 '실감 연기' 캐릭터 만든 작가도 마찬가지

정우다. 신 PD는 "영화 '바람'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며 "'응칠' 때 이미 섭외하려고 했지만 당시 군대에 있어서 '응사'에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고아라는 눈빛에서 간절함과 열정이 보여 캐스팅됐다. 여수 출신으로 자연스러운 사투리 구사는 물론 섬세한 연기까지 매끄럽게 소화하고 있는 민도희에 대해서는 "'응칠'의 성시원(정은지)을 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심하면서도 할 말은 다하며 깨알 같은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삼천포는 배우 김성균 덕분에 만들어졌다. 신 PD는 "영화 '박수건달'을 보고 김성균을 꼭 섭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김성균이 없었다면 삼천포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태지와 이문세 실제 출연?

'응사' 5화에 서태지가 등장했다. 실제 인물은 서태지가 아니라 성대모사의 달인 정성호가 맡았다. 그러나 제작진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실제 서태지를 출연시키기 위해 출연을 제안했었다. tvN 측 관계자는 "서태지 측에 '응사' 대본을 전달하고 출연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기에 자신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로 등장하는 이문세 목소리는 JTBC '히든싱어 이문세' 편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용기씨가 맡았다.

◆응답하라 1994 인물 관계도

◆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완벽 사투리

출연 배우들은 모두 지방 출신이다. 고아라(성나정)는 경남 진주, 정우(쓰레기)는 부산, 김성균(삼천포)은 대구, 손호준(해태) 바로(빙그레)는 광주, 민도희(조윤진)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본토 출신답게 섬세하고 사실감 넘치는 연기를 선사하고 있다. 작가들도 지방 출신으로 구성됐다. 충남 예산, 여수, 전남 순천, 진주, 서울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이 모여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

◆ 신촌 하숙집과 그 시절 물건들

'응사'의 모든 촬영은 세트장이 아닌 실제 건물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촌 하숙집 역시 실제 집

드라마 촬영장과 액세서리

의상 콘셉트 촌티 안나는 복고 제작진 발품 삐삐 등 소품 구입 극중 신촌 하숙집 평창동 위치

에서 촬영하고 있지만 촬영 장소는 신촌이 아닌 평창동에 위치해 있다. 또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연세대 캠퍼스와 신촌로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에 소품으로 등장하는 삐삐와 전화기 등은 제작진이 발품을 팔아 구입했다. 개인수집가나 옛날 물건을 파는 곳을 주로 찾아 다니고 있다. 단 물건을 구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대학 내 설치된 공중전화기는 제품을 구매 후 직접 설치한 뒤 촬영을 진행했다.

◆ 해태·삼천포 살아있는 1994 패션

'응사' 제작진은 복고 느낌은 살리지만 촌스럽지 않게 표현하는 것을 의상 콘셉트로 정했다. tvN 측은 "지방에서 올라온 해태와 삼천포를 통해 그 시대의 패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며 "당시 유행했던 의상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상 팀에서 따로 제작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성나정 남편은 혹시 칠봉이?

성나정의 남편 김재준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성나정의 남편 후보들은 이름이 아닌 쓰레기 칠봉이 해태 삼천포 빙그레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다. 8화에서 삼천포가 조윤진의 남편임이 밝혀져 성나정 남편 후보 중 한 사람이 탈락됐다.

여기에 빙그레는 2일 방송에서 쓰레기와 게임 도중 뽀뽀를 나누면서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응칠'에도 동성애자 준희(호야)가 있었다는 점에서 빙그레도 제외됐다. 성나정 남편은 쓰레기와 칠봉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칠봉이는 8일 방송에서 완봉승을 거두는 장면에서 야구 유니폼에 적힌 로맞한 이름이 공개됐다. 단 마지막 한 글자 '(준)'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어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 이날 방송 마지막 장면에서 성나정이 남편에게 지갑을 던지고 이를 본 조윤진이 "나이스 캐치"라고 말했다.

이는 성나정 남편이 야구선수 혹은 캐치볼에 일가견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은 권해 놓지않은 가운데 매회 시청자와 '밀당'을 계속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star bag

결혼 3년만에 아이 가져

혼성그룹 샵 출신 연기자 **서지영**이 엄마가 된다.

서지영은 현재 임신 15주째로 내년 5월 출산 예정이다. 결혼 3년 만에 임신한 그는 논현동 자택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샵의 멤버로 큰 인기를 누린 서지영은 그룹 해체 후 솔로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다. 2011년 11월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다섯 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한 후에는 내조에 전념해왔다.

전지현과 한지붕 쓴다

배우 **박민영**이 전지현과 한솥밥을 먹는다.

전지현의 소속사 문화창고는 박민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구두계약이지만 확정된 사항으로 다음주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박민영은 지난해 드라마 '닥터 진' 출연 후 휴식기를 가져왔으며 5월 전 소속사인 킹콩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났다. 내년에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12월 전역 … 차기작 검토

배우 **최재환**이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14일 소속사에 따르면 최재환은 12일 지인들에게만 알린 채 조용히 전역했다. 현재 차기작을 고르며 연예계 복귀를 준비 중이다.

2002년 데뷔해 영화 '국가대표', 드라마 '파스타' 등에 출연한 그는 지난해 2월 현역으로 군에 입대했다. 당시에도 조용히 입대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로 입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었다.

이병헌의 BH엔터 동지

아역배우 출신 연기자 **심은경**이 이병헌이 차린 기획사에 새 둥지를 틀었다.

BH엔터테인먼트는 14일 "올해 성인이 된 심은경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심은경이 본격적인 연기 행보를 펼칠 수 있는 안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은경은 드라마 '황진이' '태왕사신기', 영화 '써니' 에서 여주인공의 아역을 맡았다. 지난해 12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이병헌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재정vs시환… 오늘 한 사내는 운다

'슈퍼스타K 5' 결승전 … 제2 로이킴 제2 허각 대결

엠넷 '슈퍼스타K 5'(이하 '슈스케')가 대망의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다.

톱 4에서 김민지와 송희진이 떨어져 남자 참가자의 대결로 압축된 결승전에서 박재정(사진 왼쪽)과 박시환(오른쪽)이 15일 양보할 수 없는 경쟁을 펼친다.

이번 결승전은 각각 '제2의 로이킴'과 '제2의 허각'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박재정은 열여덟 살 해외파 고등학생으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노리며, 박시환은 정비공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가수의 꿈을 펼쳐가고 있다.

두 사람의 승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일단 박재정이 실력 면에서 앞서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으나, 박시환이 팬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문자 투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반전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도 '슈스케'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다. 시청률이 10%대까지 치솟으며 매회 화제를 몰고 다녔던 이전 시즌과 달리 역대 가장 낮은 2%대까지 추락하는 등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역대 참가자들과 달리 음원차트에서도 잠잠하다.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는 스타성의 부재가 꼽힌다. 시즌 1의 서인국, 시즌 2의 허각·존박, 시즌 3의 울랄라세션·버스커버스커, 시즌 4의 로이킴·딕펑스 등처럼 실력과 스타성을 갖춘 참가자들이 이번 시즌에는 유독 부족했다.

문자 투표의 비중이 높아 실력이 아닌 인기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스템, SBS 'K팝 스타' 등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선전, '악마의 편집'이 없어진 후 예전만 못한 연출 감각 등이 부진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시즌 우승자에게는 총 상금 5억원(음반 계약비 2억원+상금 3억원), 음반 발매 및 유명 감독과의 뮤직비디오 작업 기회,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스페셜 무대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박진영기자 sak0427@metroseoul.co.kr

빅뱅 일본 6개 돔투어 '스타트'

내일부터 … 77만 관객 전망

그룹 빅뱅이 일본 6대 돔 투어에 나선다.

빅뱅은 1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사이타마 세이부 돔, 오사카 교세라 돔,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나고야 돔, 도쿄 돔, 삿포로 돔에서 공연한다. 이번 6대 돔 투어는 오사카 1회 추가 공연을 포함해 6개 도시에서 16회 진행된다. 총 77만1000명의 관객이 동원될 전망이다. 일본 6대 돔 투어는 해외 가수로는 최초의 시도다.

빅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간 진행한 첫 월드 투어 "빅뱅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로 전 세계 12개국 21개 도시(48회 공연)에서 80만 명을 동원한 바 있다.

멤버들의 솔로 활동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빅뱅이 오랜만에 팀으로 뭉쳐 팬들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빅뱅은 15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정성은기자 jse@

거미 12월 본격 활동 나서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튼 가수 거미(사진)가 연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거미는 15일 공개되는 DJ 빅브라더의 디지털 싱글 '온리 원'에 보컬로 참여했다. 빅브라더와 함께한 '온리 원'은 한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곡으로 일렉트로닉 댄스 비트와 어우러지는 감미로운 멜로디와 달달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거미는 3일 열린 김재중의 솔로 정규 1집 아시아투어 서울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해 김재중의 앨범 수록곡 '러브 홀릭'을 함께 불렀고 '어른 아이' '눈꽃' 등의 솔로 무대도 선사했다.

이달 말에는 휘성과 듀엣 음원을 발표하고 다음달 3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듀엣 콘서트를 개최한다. 두 사람은 10년 전 첫 듀엣곡 '두 잇'을 콘서트 제목으로 결정하고 최고의 R&B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이수근·탁재훈 등 연예인 도박사범 무더기 기소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수근·탁재훈·토니안(사진 왼쪽부터)이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범을 수사한 결과 베팅금이 억대를 넘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베팅한 앤디·붐·양세형에게는 벌금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근과 탁재훈은 축구 동우회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동우회 회원의 권유로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맞대기 도박에 3억7000만원과 2억9000만원을 각각 베팅했다.

토니안과 앤디·붐·양세형은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하며 휴가 중 알게 된 김모씨의 권유로 영외 행사 시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토니안은 맞대기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모두 4억원을 베팅했다. 앤디와 붐, 양세형은 4400만원, 3300만원, 2600만원을 각각 베팅했다.

검찰은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함께 개그맨 김용만·공기탁 등 연예인 8명을 적발했다. 이수근의 전 매니저 김모씨도 이수근의 상습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순호기자 suno@

the(더) 순정예능

평균 한국거주 7년, 외국인 4인방의 순정예능

매주 |화| 밤 11시 tvN 방송 / 11월 19일 첫방송

한국 로맨스·스릴러 '홍수'

아픈 사랑 그린 '소녀' 엄마의 복수극 '더 파이브' 등 개봉 잇따라

외화에 밀려 주춤하던 한국 영화들이 다시 흥행 고삐를 조인다. 가을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로맨스물과 강한 남성미를 담은 스릴러로 무장하고 반격에 나섰다.

◆ 각기 다른 개성 담긴 로맨스

14일 개봉한 '소녀'는 말실수로 친구를 죽게 한 소년과 잔혹한 소문에 휩싸인 소녀의 위태롭고 아픈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순수해서 위태롭고 잔혹할 수밖에 없었던 '소녀' 속 주인공들의 사랑은 로맨스와 하드보일드를 넘나드는 최진성 감독의 남다른 연출력을 통해 색다른 로맨스 영화로 완성됐다. 김시후와 김윤혜의 연연이 돋보인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네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결혼 전야'(21일 개봉)도 눈에 띈다. 김강우·김효진·이연희·옥택연·마동석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의 활약이 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의 애환을 담은 영화 '청춘정담'(21일 개봉)은 군 입대 예두전 여자친구와 첫 경험을 가진 스물한 살 커플과 사고를 앞두고 모든 걸 포기한 커플이 만나 벌지는 소동을 다룬 작품이다. 제3회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숲영화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인수 감독이 연출했다.

◆ 화끈한 액션 담긴 스릴러

연쇄살인마에 의해 가족을 잃은 한 여자(김선아)의 복수를 그린 스릴러 '더 파이브'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웹툰을 연재한 정연식 작가가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마동석 특유의 장기를 살려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김선아와 온주완 등이 전에 보지 못한 열연을 펼친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만큼 조각 맞추듯 짜여진 스릴러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

전작 '친구'의 영광을 재현할지 기대를 모으는 곽경택 감독의 '친구2'는 동수(장동건)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던 전편에 이어 17년 뒤 감옥에서 출소한 준석(유오성)이 동수의 숨겨진 아들 성훈(김우빈)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SBS 수목극 '상속자들'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김우빈의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다. /장병호기자 ysw@metroseoul.co.kr

'친구사이?' 15세 이상 관람가

동성애를 다룬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친구사이?'가 개봉 4년 만에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14일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처분을 내렸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제훈·연우진이 주인공을 맡고 2009년 12월 제작된 이 영화에 대해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유순호기자

제니퍼 로렌스 보이시한 걸

파격 숏커트 관심집중

할리우드 톱스타 제니퍼 로렌스(사진)가 영화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 개봉(21일)을 앞두고 전 세계 팬들은 물론 패션 브랜드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로렌스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한 프레스 정킷에 영화 속 긴 머리와 다른 파격적인 숏 커트 헤어 스타일로 나서 팬들을 놀라게 했다. 급발로 변신한 로렌스의 숏 커트 헤어는 보이시한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11일 영국 런던, 12일 독일 베를린, 13일 스페인 마드리드,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해 유럽 팬들을 사로잡았고 15일 프랑스 파리와 18일 LA에서 프리미어 행사를 이어간다.

영화에서 '여전사' 캣니스로 출연해 강렬한 액션과 섬세한 감정 연기를 동시에 보여준 로렌스는 세계 유명 패션지들로부터 줄줄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 패션 브랜드 디오르는 로렌스를 새로운 뮤즈로 선정해 미스 디오르 화보에서 눈부신 미모를 자랑했다.

패션지 보그의 미국판 9월호에서는 내추럴한 헤어와 어두운 미소로 팬들을 사로잡았고, 하퍼스 바자의 영국판 11월호에서는 그동안 감춰왔던 섹시미를 발산했다.

'캣칭 파이어'는 캣니스를 없애기 위한 독재국가 판엠의 음모로 역대 우승자들을 모은 헝거게임이 개최되면서 캣니스가 절대 권력에 맞서 은밀한 전쟁을 시작하는 과정을 그린다. /유순호기자 suno@

빈 디젤 우주전사 변신… 상남자 매력

'리딕' 28일 관객맞이

액션 가이 빈 디젤이 우주 전사로 거친 남성미를 뿜어낸다.

디젤은 28일 개봉하는 영화 '리딕'으로 극장가를 찾는다. '리딕'은 '에이리언 2020', '리딕-헬리온 최후의 빛'에 이어 10년 만에 돌아온 속편이다. 동료의 배신으로 불모의 행성에 버려진 리딕(빈 디젤)이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에일리언과 그를 쫓는 현상금 사냥꾼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그린 SF 액션 블록버스터다.

'리딕'은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국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는 등 국내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디젤은 불모의 행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인한 생존력을 몸에 익히기 위해 촬영 전 4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했을 정도로 캐릭터에 몰입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을 선보였다. 그는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질 몸매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에 극한의 액션 본능을 담아냈다. /유순호기자

YES24.COM 예매순위

순위	영화	예매율
1	친구2	28.73%
2	어바웃 타임	21.93%
3	토르: 다크 월드	9.19%
4	그래비티	7.53%
5	공범	5.33%

파리나무십자가 합창단 내한

프랑스 소년 아카펠라 합창단인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다시 한 번 한국 팬들을 찾는다.

이들은 2011년 새로 부임한 지휘자 글로릴드 세베르의 지휘 아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을 연다. 다음달 10일 한양아트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성남·하남 등을 돌고 22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자장가', 슈베르트 '붉은 장미' 등의 클래식곡과 '넬라 판타지아' '징글벨' 등 대중적인 곡들을 들려주며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24명의 소년들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100여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월드투어를 하며 사랑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71년 첫 내한 공연 이후로 매년 매진 기록을 썼다. /박선영기자

점핑샷으로 들여다본 인간 내면

할스만 내달 국내 첫 사진전 유명인사 작품 200점 선봬

세계적인 사진작가 필립 할스만의 전시 '점핑 위드 러브전'이 다음달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프랑스 화가 마르크 샤갈,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사진 왼쪽), 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오른쪽)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점핑을 한 이색 사진 200여 점이 이들의 소품과 함께 전시된다.

1979년 사망한 할스만은 왕성하게 활동하던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리더들의 점핑샷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초상사진의 개념을 깨고 확장된 현대 인물사진의 시초가 된 인물이다. 101회로 라이프지 표지 장식 최다 기록, 닉슨 대통령에 선택한 백악관 공식 사진가라는 이력의 소유자기도 하다.

주최사인 코바나컨텐츠는 14일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할스만은 인물사진 속에 남다른 심리학적 의미를 담았다. 점핑을 통해 품위와 관습을 해방시켜 인간 본성과 내면을 끄집어냈다"면서 "이번 전시에서는 세기의 인물들이 저마다의 표정과 자세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통해 순수한 초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렘브란트 마릴린 먼로의 미공개 컷이 국내에 첫 공개되고,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역도선수 장미란, 배우 안성기 등 국내 유명 인사들의 점핑샷도 별도의 이벤트로 선보인다. 전시는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1층에서 열린다. 문의 (02)532-4407

/이현정기자 sjk0427@metroseoul.co.kr

'노래하는 스타성우' 이용신

오늘 첫 정규앨범 발표

인기 성우 이용신(사진)이 가수로 새로운 행보를 시작한다.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 캐릭터 구미호 아리의 목소리로 유명한 이용신은 15일 첫 정규앨범 '타입 콘트롤 용신'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은 목소리와 창법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성우로서 장점을 살려 마치 게임에서 타입별로 캐릭터를 고르듯 음악 장르를 선택해 듣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다양한 장르의 9곡을 각기 다른 창법으로 소화하며 마치 여러 가수가 참여한 컴필레이션 앨범의 느낌을 준다.

이용신은 '짱구는 못말려'의 채성아 선생님, '명탐정 코난'의 보라, '캐릭캐릭체인지'의 아무 등 인기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목소리로 익숙하며 최근에는 tvN '퍼펙트 싱어 외 드림 싱어 군단'으로 출연해 수준급의 가창력을 선보였다.

/유순호기자 suno@

'크리에이티브마인즈 연극' 선정작 3편 내년초 공연

CJ문화재단의 신인 연극 창작자 지원사업 '크리에이티브마인즈 연극' 공모의 최종 선정작 세 편이 본 공연에 들어간다.

'바람직한 청소년', '아쭈로 프로젝트', '소년 B가 사는 집'이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학로 아르센터K에서 공연된다.

이들 작품은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이와 독창적인 시선이 돋보이면서도 성장통이라는 공통된 주제 본 내세워 일맥상통하는 특징을 보인다.

문삼화, 김수희·이래은 등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젊은 여성 연출가의 작품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CJ문화재단 측은 "9월 대본 독회 및 연출 프레젠테이션 이후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간 세 편의 작품은 연출 및 극작가인 조광화, 배삼식 예술감독의 조언을 받으며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선정작에 무대세트, 의상, 소품 등 풀 프로덕션을 지원해 관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CJ문화재단은 본 공연에 앞서 젊은 창작자들의 첫 무대를 응원하는 '응원한줄'를 제작한다. 세 편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크마 연극 패키지' 티켓을 구매하는 관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티켓 판매 수익금은 전액 CJ도너스캠프에 기부돼 연극에 관심 있고 소질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된다. /박선영기자

<이대호·오승환>

일본 구단 "'이·오'를 잡아라"

이대호 오릭스에 결별통보
한신 "오승환 영입 1순위"

국내 투타 간판스타인 이대호(31·사진 왼쪽)와 오승환(31·오른쪽)이 일본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거포 이대호가 원소속팀 오릭스 버팔로스와 결별을 선언했고 삼성 특급 마무리 오승환에 대한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두 선수 영입을 노리는 구단들이 막바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이대호의 에인 이자포 O2에스앤엠 대표는 이대호가 전날 오릭스에 "팀 환경과 연고지인 오사카 등 모든 것이 좋지만, 오릭스의 제시액으로는 팀에 남을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대호는 2011년 일본에 진출하면서 오릭스와 2년간 총액 7억6000만 엔에 계약했다. 오릭스는 올 시즌 후 이대호에게 2년간 총액 8억 엔에 재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2년 연속 홈런 24방, 91타점을 올리며 오릭스의 주포로 활약한 이대호는 액수가 적다며 이 제안을 일축했다.

이자포 대표는 "오릭스와 15일 전까지 협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 구단 쪽에 결별을 통보했다"며 "2~3개의 다른 일본 구단에서 이대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제시액이 오릭스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대호에게 눈독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구단은 한신 타이거스, 소프트뱅크 호크스 등이다.

반면 오승환은 한신 타이거스가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는 분위기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호치는 팀 전력 보강의 1순위로 오승환을 거명한 미나미 노부오 한신 구단 사장의 발언을 14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 구단 간 오승환 쟁탈전이 벌어지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나 사카이 신야 한신 구단주는 구단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해 전폭 지원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구단 사장에 이어 구단주까지 오승환과의 계약에 열을 올림에 따라 탐색만 하다 발을 뺐던 한신이 적조로 한국 선수를 데려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장성훈기자 ysw@metroseoul.co.kr

커쇼 NL 사이영상

LA다저스 왼손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사진)가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의 영예를 안았다.

커쇼는 14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미국야구기자협회 투표 결과 선거인단 30명 중 29명에게 1위 표를 받아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 수상자로 뽑혔다.

커쇼는 올 시즌 16승9패와 평균자책점 1.83, 탈삼진 232개의 빼어난 성적을 거두며 다저스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평균자책점과 탈삼진 1위에 오르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NL 최고의 투수로 거론됐다. 2011년에도 한 차례 사이영상을 받은 커쇼는 벌써 두 번째로 최고 투수의 영예를 안았다.

아메리칸리그(AL) 사이영상의 영광은 다승왕 맥스 슈어저(29·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돌아갔다. 슈어저는 30명의 선거인단 중 28명에게 1위 표를 받아 생애 첫 사이영상을 품에 안았다. 슈어저는 올 시즌 21승3패와 평균자책점 2.90을 기록했다. 양대 리그를 통틀어 20승 투수는 올해 슈어저 한 명뿐이다.

다르빗슈 유(텍사스 레인저스)와 이와쿠마 히사시(시애틀 매리너스) 등이 AL 사이영상 투표 2~3위에 올라 일본인 팬들의 기대감을 키웠으나 슈어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장성훈기자

KT위즈 유니폼 디자인 마법사 이미지 곳곳에

프로야구 10구단 KT 위즈의 유니폼 디자인이 베일을 벗었다.

KT는 14일 광화문 사옥 올레스퀘어에서 BI 디자인을 공개했다. KT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BI 디자인은 이미지 심벌, 엠블럼, 유니폼, 마스코트로 이뤄졌다. KT는 홈과 원정경기 유니폼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각각 따로 제작했다.

'위즈'라는 팀명이 비범한 솜씨와 재능을 지닌 사람 또는 마법사를 뜻하는 만큼 마법사 이미지를 곳곳에 반영했다. 홈에서 입을 유니폼에는 영문 이니셜 K와 W를 활용해 강력한 마법 문장이 연상되도록 고안했다고 KT는 밝혔다.

또 두 개의 마스코트 이름은 '빅(vic)'과 '또리(ddory)'로 지었다.

한편 현재 경남 남해에서 훈련 중인 KT 선수단은 20일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으로 떠나 내년 퓨처스(2군)리그 참가를 위한 53인간의 훈련에 들어간다.

/장성훈기자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프로야구 제10구단 KT WIZ의 BI(Brand Identity) 디자인 공개행사에서 선수들이 유니폼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손흥민·김신욱 콤비 스위스를 부탁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스위스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훈련에서 손흥민과 김신욱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한국축구 수비 불안 미안합니다"

'초롱이' 이영표 은퇴소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36)가 겸손한 은퇴 소감을 전했다.

그는 14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2000년대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비 불안이었고 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 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할 패배 앞에서 비겁한 변명과 핑계를 댄 적도 많았다"며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 좌절과 성공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감사함과 미안함이 교차한다"고 감회에 젖었다.

이영표가 14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자신의 선수 생활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주문에 그는 "훌륭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80점이지만 축구와 함께 즐거워했던 것에는 10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역 은퇴를 공식 선언한 이영표는 15일 한국과 스위스의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은퇴식을 한다.

/송소희기자 sso@

SK 시즌 첫 전구단 상대 승리

서울 SK가 2013~2014 프로농구 시즌 처음으로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SK는 14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정규리그에서 변기훈(17점), 김선형, 박상오(이상 13점)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전주 KCC를 77-72로 물리쳤다.

올 시즌 14경기 만에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SK는 11승3패를 기록, 울산 모비스(10승3패)를 제치고 단독 1위에 자리했다.

고양에서는 홈팀 고양 오리온스가 부산 KT를 70-54로 꺾었다.

오리온스는 이번 시즌 첫 연승을 기록하며 4승8패가 돼 6위 인천 전자랜드(6승7패)와의 승차를 한 경기로 좁혔다.

프로농구 전적 14일

KCC	20	15	18	19	72
SK	23	12	22	20	77
오리온스	21	11	18	20	70
KT	17	11	15	11	54

프로배구 전적 14일

현대건설	3	0	인삼공사
한국전력	0	3	삼성화재

Kappa
CREATE YOUR OWN SPORTS
HEAT-KOMBAT
200만명 돌파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20%
이벤트 장소 | 전국 카파 매장